

‘치유농업’ 운영 사례와 시사점

경제사회연구부 사회복지학 박사 문정화 연구위원
jhmoon@gyri.re.kr

경제사회연구부 실버산업학 석사 유선치 위촉연구원
ysc@gyri.re.kr

Contents

- I. 치유농업의 개념 및 주요국 현황
- II. 네덜란드 치유농업 운영 사례
- III. 기타 국가 치유농업 운영 사례
- IV. 우리나라 치유농업 현황
- V. 시사점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의 심리적·사회적·인지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을 뜻하는 것으로 농업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농업의 대표국가인 네덜란드에서 농장 운영만으로는 생존이 어려운 소규모 농장이 추가소득 수단을 찾으면서 치유농업(케어팜)이 시작되었다. 치유 농업이 참여자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고 농가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는 치유농업센터를 설립하고 건강보험과 연계하였고 지자체는 사회지원법을 통해 치유농장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현재 1,300여개에 달하는 치유농장이 운영되고 있는 등 네덜란드 사회를 이끌어가는 농업 문화로 안착되고 있다.

치유농업의 이용자는 장애인, 노인, 유아, 환자 등 돌봄, 심신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어린이, 성인, 노년층까지 모든 시민이 이용가능하다. 이들에게 치유농장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제공하여 농장에서 농사일을 하거나 동물을 돌보거나 가공 업무를 하는 등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만큼 하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농장주들이 치유농장 운영을 통해 형성한 폭 넓은 관계들은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 뿐 아니라 노르웨이,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치유농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보다 고령화가 빠른 일본의 경우 노인 중심의 많은 치유농장이 운영되고 있다.

치료중심형 치유농장은 전문가를 활용하여 참가자들을 치유하거나 치료효과를 위해 장기간 또는 주기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활중심형 치유농장은 참가자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농작활동 고용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유농장의 대부분은 체험학습,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힐링 관광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경상북도에서 지자체 차원으로 치유농장을 육성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거창군, 부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치매 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노인 대상 돌봄 치유농장을 운영 하는 등 치유농업의 활성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선진 사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치유농업은 농가와 농촌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 창출 및 지역 개발의 이익 창출이 가능한 수익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농업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고양시에서도 ‘도농복합’, ‘화훼단지’의 지역특성을 잘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사회서비스 일환으로 치유농업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네덜란드 사례와 같이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화된 농업 시스템으로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스마트 팜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치유농업을 지원하여 농업을 큰 두 개의 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치유농업 적용 시 도시 공유지 중 유희지나 공공텃밭, 정원들을 활용한 도시 농업과 접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치유농업은 농업 뿐 아니라 치유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치유농업에 전문성을 겸비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는 방안, 노인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일자리 교육 등 기존사업 및 지역 내 병의원등과 연계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 치유농업의 개념 및 주요국 현황

GYRI

□ 치유농업의 개념

○ 치유농업¹⁾

-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인지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을 뜻함
- '농업의 치유적 기능'이라는 큰 틀은 같지만 나라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씩 다름.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Green Care'로 통용되는 경향이며, 농업기반을 강조하기 위해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 'Care farming'이라는 용어도 폭넓게 사용함. 국가에 따라서 'Social Farm(사회적 농업)'으로 쓰기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진흥청에서 'Agro-healing(치유농업)'이라고 정의함

□ 주요국 현황

○ 각 국 정부의 치유농업 지원 정책²⁾

- 네덜란드 : 국가 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 질 관리체계(치유농장주, 협회 등) 운영, 국민건강보험과 연계, 치유농업 법 제정, 치유농업 연구 프로젝트 등
- 노르웨이 : 정부부처 통합 위원회 구축(농림부 주관), 품질관리 및 보증제도 운영, 치유농장 협약제도, 치유농업 학위과정 및 평생교육 지원, 국가재정 지원
- 이탈리아 : 지방정부에서 지역 보건단체, 협동조합, 농장주, 협회 등의 협력체계 및 연구 지원, 사회통합과 복귀를 위한 교도소 등 일부 국가 지원
- 벨기에 : 국가 및 지역단위 지원기관의 설립 운영, 농업인 교육훈련센터, 치유농장 인정방안 마련(법, 규제), 치유농장 재정지원
- 프랑스 : 국가 및 지방정부의 공공지원금 추진, 비용에 대한 지방정부 보조, 치유농장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치유농업 제공자 교육훈련

1) 국립원예특작과학원(김경미), '치유농업을 통한 6차 산업화 공간확장 전략', 2014.4.15 p10

2)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치유농업 총서 I - 치유농업의 이해', 2016. p10.

- 독일 : 건강보험 직업병 치료 항목에서 예산을 지원함. 병원, 사회재활센터, 커뮤니티, 녹색작업장에 EU 수준의 기준 적용
- 영국 : 국가치유농업계획 수립, 지역별 치유농장 연계체계 및 치유농업 기관 파트너십 구축, 치유농업 프로그램(멘토링, 퍼실리테이터) 운영 등
- 일본 : 국가농림수산정책 포함, 국가연구기관에서 효과 분석, 농업의 복지, 치유기능에 주목함. 장애인 고용, 취업, 재활, 노인복지에 중점 적용
- 유럽 주요 국가의 치유농업 현황
- 노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연에서의 활동이 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하여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건강관리, 사회 재활치료, 교육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린케어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특히 농업선진국인 네덜란드는 농업 및 농촌과 연계한 치유농장을 중심으로 치유농업 제공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음

<표1> 유럽 주요 국가의 치유농업 현황(Marjolein Elings, 2013)

국가	치유농장	국가	내용
네덜란드	1,100개소	프랑스	500개소
노르웨이	1,100개소	오스트리아	250개소
이탈리아	700개소	독일	162개소
벨기에	595개소	아일랜드	133개소

□ 치유농업의 효과

○ 참여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향상 효과

- 치유농업의 연구에서 일부 참여자들의 신체적 건강이 향상되었음을 증명함. 농장에서의 신체적 작업은 일반적인 체력 향상과 함께 건강한 식사와 개선된 식이요법으로 유도하며, 신체적 피로는 보다 나은 수면패턴을 형성하는 데 기여함
- 치유농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정신건강 향상임. 농장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제공하여 공격성을 낮추도록 유도하며, 분노, 혼란, 우울, 긴장, 피로와 같은 감정의 감소 등이 입증됨

○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사회통합 효과

- 치유농업은 사람들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흥미와 동기를 부여함. 치유농장 케어서비스에 참여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겨 새로운 일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를 사귀는데 자신감이 증가함
- 치유농업을 통한 자존감 향상은 독립성과 개인적 책임감이 커지며, 작업 습관의 형성, 다른 사람과의 관계 기술 증가 등으로 사회로 복귀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음
- 치유농업은 참여자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가 다소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농장주들이 지역사회에서 폭넓은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게 하는 긍정적인 결과도 가져옴

○ 농촌의 다기능 가치 실현 및 소득 증가 효과

- 치유농업은 치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농장 활동을 통한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적 목적 달성 외에도 기존에 농업 생산 활동에만 집중되었던 농촌의 기능을 건강관리, 사회 재활치료, 교육서비스 제공 등으로 넓혀 농촌의 새로운 수익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II. 네덜란드 치유농업 운영 사례³⁾

GYRI

□ 네덜란드 농업

○ 스마트팜과 치유농업인 케어팜 두 방향으로 진화해 가고 있음

- 네덜란드는 남한면적의 40%밖에 되지 않고 이 중 3분의 1은 간척지임에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농업수출국임
- 네덜란드 농업의 발전은 크게 두 축으로 기존 농업에 새로운 가치를 결합한 케어팜 모델과 대형 시설투자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한 스마트팜 모델로 구성됨
- 스마트팜은 농업 자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최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IT를 접목하여 한국보다 생산량이 10배가 될 정도로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음

3) 주간동아 ‘케어팜, 스마트팜으로 네덜란드 농업 진화중’, 2018.7.17., 국립산림과학원(김성학·장주연), ‘네덜란드 그린케어 및 케어팜 정책 사례와 시사점’, 2017.8.15. 사례와 매일경제, ‘네덜란드에서 한국형 농촌요양시설과 농촌관광의 미래 모델을 찾다-케어팜(Care Farm)’, 2019.7.11. 기사 내용을 정리함
 (네덜란드 케어팜 사진 출처 : 매일경제 기사)

□ 네덜란드 치유농업의 특징

○ 발전 과정

-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은 농업과 복지를 합친 개념으로 도입 초기에는 농장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농장 운영만으로 자급자족이 어려워서 추가 소득 수단을 찾는 과정에서 치유농장을 활용하였으나, 이후 지역개발 트렌드에 따라 농업의 다기능 실현과 지역특산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면서 확대됨
- 1995년부터 보험과 연계한 치유농업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1997년 정부 차원의 치유농업 지원 센터가 설립되어 2019년 현재 약 1,300개 이상의 치유농장이 운영됨. 개인 운영 치유농장이 다수임

○ 운영 인력

- 치유농장은 가족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으며, 운영 관련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자원봉사활동참여자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네덜란드에는 농업관련 대학에서 농업과 치유농업을 접목한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치유농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함

○ 수익 구조

- 운영 사례로 조사된 치유농장의 경우 연간 약 6억원(50만유로) 이상의 수익을 창출함. 치유농장의 운영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다수 치유농장 80% 정도는 치유농장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익이며, 나머지 20% 정도는 농작물 생산 판매 및 기타 수익 등으로 이루어짐
- 도심형 치유농장의 경우 치유농장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익과 기타 수익의 비중이 5:5 정도로 농작물 생산판매 수익, 레스토랑 또는 카페 운영 수익, 회의장 임대 수익 등 치유농장 서비스 외에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는 경향이 강함

○ 주요 이용객

- 치유농장의 주요 이용객은 장애인, 비장애인, 환자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성인, 노년층까지 다양함
- 어린 아이의 경우 일반 정규교육 과정 외에 야외에서 활동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놀이와 학습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케어팜이 있으며, 청소년 및 성인의 경우 지적장애, 자폐, 정신질환 등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참여함
- 노인들은 돌봄필요노인, 초기치매노인 등이 많이 참여함

○ 운영 프로그램

- 치유농장의 치유 프로그램은 농장에서 나무를 활용한 작업활동 및 농작물 생산 체험 등을 하기도 하며, 산책, 수공예, 참여자들간의 이야기 나누기, 게임, 음식만들기 등 그룹활동 및 개인활동을 통한 치유활동으로 이루어짐

○ 네덜란드 치유농장 서비스의 효과

- 치유농장이 자폐,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좋은 작업환경으로 인식되면서 치유농장과 관련된 다양한 노동활동과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직업학교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노인들의 경우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활동하면서 뇌 기능이 활성화 되고 자존감 및 사회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임
- 치유농장 서비스를 통해 아이를 하루 종일 돌보지 못하는 부모나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환자 가족들의 선호도가 높음

○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 정부 차원의 치유농업 지원센터 설립, 국민건강보험과 연계, 치유농업 법 제정, 질 관리체계가 이루어짐
- 네덜란드는 지자체 WMO(사회지원법)을 통해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치유농장은 치유농장 서비스 비용을 지자체에 청구함. 치유농장 이용객들은 치유농장 및 WMO 팀을 통해 1년 단위의 서비스 계약을 하고, 1년 후 개선 상태를 평가하여 추가 서비스 이용을 결정함

□ 사례 1. Hoeve Klein Mariendaal

○ 도심 외곽 지역, 환경 단체 소유의 숲을 임대하여 치유농장 부지로 활용

- Hoeve Klein Mariendaal 은 암스테르담 중심지에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치유농장으로 인근 환경단체 소유의 숲을 임대하여 전문적인 케어서비스를 제공함
- 농장은 전문경영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치유농장의 경영, 치유, 농업,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됨
- 성인, 아이, 노인 등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으며, 1주일에 평균 90명이 방문함
- 후브 클라인 마리엔달 치유농장을 방문하면 여유 있게 커피와 빵을 즐기며 휴식을 취하는 사람, 요리를 하는 사람, 딸기를 따거나 채소밭에 물을 주는 사람,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 등 각자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농장의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와 치유가 필요한 사람 두 세명이 한 조가 되어 활동을 함
- 요양시설은 환자로 취급하는 반면 치유농장은 휴식 또는 일을 하러 간다는 생각이 들게 해서 환자나 환자 가족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

<그림1> 네덜란드 아른헴(Arnhem) 지역의 Hoeve Klein Mariendaal 치유농장 전경



□ 사례 2. Stadsakkers

○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시작된 치유농장

- Stadsakkers 는 생태 및 유기 농업에 관심이 많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시작됨
- 주요 이용객은 청년이나 은퇴자들임. 정신적 문제 또는 사람들과 어울려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18세 이상 청년들이 치유농장 활동을 통해 사회로 나가기 전 훈련을 받는 곳으로 활용함
- 치유농장은 직업학교보다 적은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자폐, 정신질환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작업환경으로 인식되면서 직업학교로서의 역할을 함
- 지자체에서 치유농장을 봉사활동 장소로 추천하고, 인근 지역의 은퇴자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농작물의 대부분은 치유농장 참여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일부만 판매함

□ 사례 3. Eekhoeve

○ 도심형 케어팜, 운영 소득의 다각화

- 네덜란드 비넨달(Veenendaal) 지역 주거 단지 내에 위치한 익후버 치유농장은 도심형 치유농장으로 케어서비스와 더불어 생산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여 소득을 다각화함
- 다른 치유농장보다 케어서비스는 다소 적고(60%), 생산 판매 활동(40%)을 활발히 함. 케어팜 조합의 회원사들이 생산한 가공식품을 상호부조 형태로 판매하면서 수익을 배분함
- 1주일에 100여명 정도가 이용함(노인 60여명 포함)

<그림> 네덜란드 비넨달(Veenendaal) 지역의 Eekhoeve 치유농장



□ 사례 4. Hoogbroek

- 부부가 운영하는 치유농장, 물려받은 농장부지 활용
 - Care Farm Hoogbroek 는 농장부지만 있던 곳에 10만 유로를 후원받아서 텃밭, 축사, 승마장, 목공 작업장, 식당시설 등 치유농장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들을 조성함
 - 부부가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 관련 전문 인력 2명을 추가 고용하여 치유농장 서비스만 제공함. 농작물 생산판매 등은 하지 않음
 - 주요 이용객은 청소년, 발달장애청소년, 노인, 치매환자 등임

<표2> 네덜란드의 치유농장 운영 사례

구분	Hoeve Klein Mariendaal	Stadsakkers	Eekhoeve	Care Farm Hoogbroek
운영인력	고용인원 10명(코디네이터 2명, 농작물생산 전문가 등), 자원봉사자 40명	농업과 케어 전문교육과정 이수한 전문인력 고용 3명, 인근 지역 은퇴자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가족경영형태로 운영, 20명 고용(케어팜 12명, 농산물판매 8명)	부부가 운영하는 케어팜
주요 이용객	초기 치매 노인, 지적장애 성인, 정규교육 외의 욕구가 있는 아이	청년(정신적 문제 또는 사회적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젊은이), 은퇴자들이 주로 이용	돌봄필요 노인, 치매노인, 성인(지적장애, 심리불안장애, 약물중독, 자폐증상)	노인, 치매환자, 청소년, 발달장애 청소년 등
케어팜 서비스	요리, 빵 만들기, 치매노인을 위한 농장 실내외 활동, 정원작업, 가족 먹이주기, 조각놀이 등	생태 및 유기 농업에 관심이 많고, 유기농 중심의 농장 생산물과 케어팜 서비스 병행	그룹활동(권유) 및 개별활동, 이야기 나누기, 게임, 만들기를 통한 뇌자극 활동, 음식만들기 등	텃밭, 축사, 승마장, 목공작업장, 식당시설 보유, 케어팜 커뮤니티 활동
수익구조	연간 약 6억원 수익 (80%는 케어팜서비스, 나머지 20%는 농작물 생산판매 및 레스토랑 운영 수익)	연간 약 11억원 수익 (80%는 케어팜서비스, 10%는 기부금, 나머지는 유기농작물 판매 수익) ※ 농작물 대부분은 자원봉사자 및 케어팜 참여자들에게 무상 제공하고, 일부만 판매함	연간 약 7억2천만원 수익 (60%는 케어팜서비스, 나머지 40%는 농산물 판매 수익)	연간 약 7억2천만원 수익 (케어팜서비스 제공만으로 수익 창출) ※ 수익다변화 위해 레스토랑 운영 예정
공통사항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 사회지원법(WMO) 부서로 비용을 청구하면 보험공단을 통해 지원함			

III. 기타 국가 치유농업 운영 사례4)

GYRI

- 농업선진국인 네덜란드 외에도 벨기에,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치유농장을 운영함
- 조사된 국가의 치유농장 사례는 주로 지적장애인, 정신적문제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함
- 치료중심형 치유농장은 전문가를 활용하여 참가자들을 치유하거나 치료효과를 위해 장기간 또는 주기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활중심형 치유농장은 참가자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농작물활동 고용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함

4) 농촌진흥청, '예방중심형 치유농업 기술보급 매뉴얼', 2017. p17, p71~72.

□ 사례 1. 미국 흡월 치유농장 커뮤니티

○ 치료중심형 치유농장

- NGO 단체로 설립된 미국의 흡월 치유농장은 미국정신과협회, 미국거주치료협회의 회원기관으로 관련 정부 부서의 인증 및 면허를 받고, 정신적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만 18세 이상 성인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시행함
- 참가자는 전신분열증, 조울증, 우울증, 분열정동성장애 등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 문제를 가진 환자이며, 연 253명이 참가함(2014년 모든 참가자 기준)

<그림1> 미국 흡월 치유농장 커뮤니티(NGO 단체)



※ 정신적 문제 및 도움이 필요한 성인



※ 전문적인 치료제공

□ 사례 2. 일본 교마루엔 농장

○ 재활중심형 치유농장

- 일본 교마루엔 농장은 유니버설농업연구회에 속해 있는 어린 파 재배농장으로 장애인 파견회사를 통해 정신적, 지적 장애인을 직접 고용(24명)하여 농작업을 실시함
- 유니버설농업연구회는 정부, 농업인협회, 원예네트워크, 복지, 대학, 장애인파견회사 등과 협력관계를 유지함
- 장애인 고용을 통한 복지 실현과 농업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농작업과 농산물 판매를 통해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도움
-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 효과와 부가 소득을 얻고 있으며, 블로그 운영, 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언론홍보 등도 병행함

<그림1> 일본 교마루엔 농장(농업법인)



※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여 농작업 실시

□ 사례 3. 벨기에 Dirk and Anita Decoster-Baeyens 농장

○ 소규모 치유농장

- 벨기에의 Dirk and Anita Decoster-Baeyens 농장은 쯏소를 활용하여 지적장애인, 정신적문제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 3명의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환자 1명을 대상으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함

<그림1> 벨기에 Dirk and Anita Decoster-Baeyens 농장(농업법인)



※ 1일 1명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송아지 돌보기 등 프로그램 소규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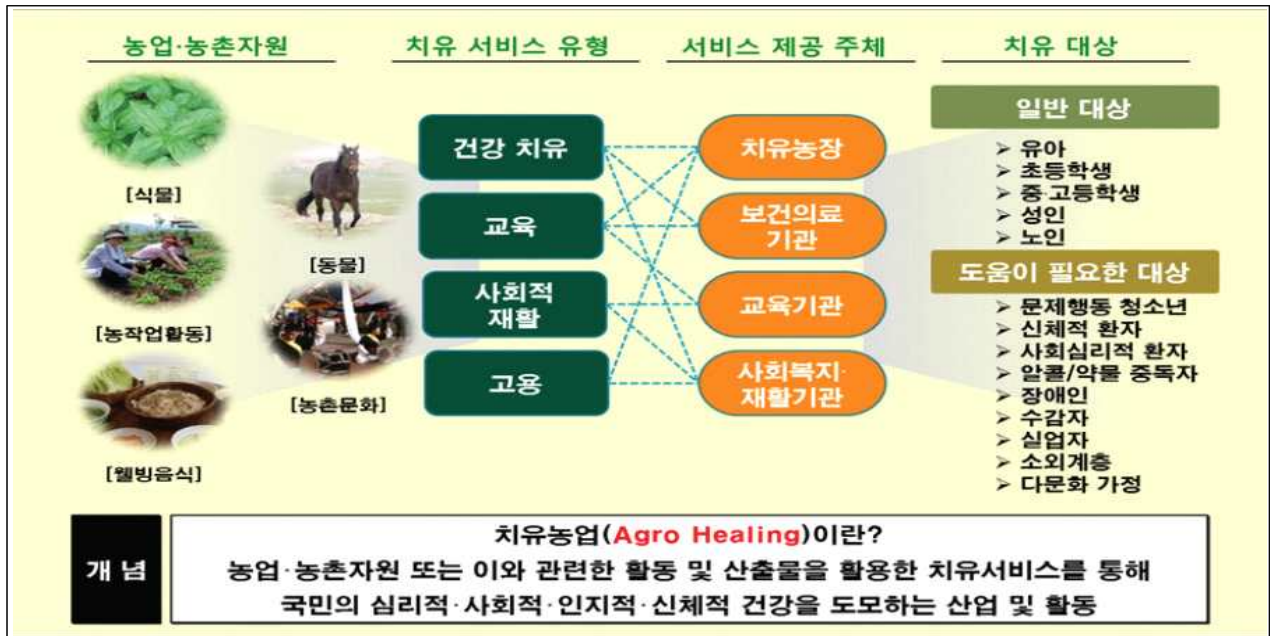
IV. 우리나라 치유농업 현황 GYRI

□ 체험형 힐링관광 중심의 치유농업

○ 우리나라 치유농업의 특성

- 장애인 및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유농장은 농업 외에 치료(치유)전문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함. 유럽의 경우 치유농장주와 치료전문가의 프로그램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병의원 및 복지회관 등이 연계하여 운영하는 치유농장이 많음. 따라서 네덜란드, 영국 등은 지적장애, 치매 등 장애인 및 환자치료에 치유농업이 활용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힐링관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우리나라 치유농장의 대부분은 체험학습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나 힐링을 필요로 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장 체험활동, 지역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주를 이룸
- 최근 들어 지자체(경상북도) 차원에서 치유농장을 육성하는 시책을 추진하거나 거창군, 부천시 등 일부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노인 대상 돌봄치유농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함

<그림1> 치유농업(Agro Healing)의 개념⁵⁾



5)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치유농업 총서 I - 치유농업의 이해', 2016. p12.

<표7> 우리나라 치유농업 마을 및 농장 사례6)

지역	마을/기관명	치유농업	연계상품
서울	즐거운농장	토마토, 채소, 땅콩, 벼 수확, 가축 먹이주기, 주말 텃밭농원 등	화분만들기, 수확 후 음식만들기 등
제주	물외힐링팜	유기농, 약초 체험, 한방갈국수, 한방떡살만들기 등	귀농인, 유기농가 노동·숙식 교환 네트워크 우프(WWOOF) 운영
양평	산음숲자연학교	명상치유, 예술·미술치료, 원예치료, 숲치유, 잔디운동장, 목공예 등	펜션, 바비큐장, 식당, 산음자연휴양림과 제휴 등
완주	인덕마을	유기농 채소수확 및 시식, 숲체험(계곡 산책로) 등	토종한증, 썩뜸, 효소만들기, 황토민박, 웰빙식당, 특산물 등
하동	하늘땅번지마을	야생녹차 수확, 산나물 채취, 숲체험(산림욕) 등	별자리 관찰, 효소 스파체험, 농가민박, 건강밥상, 특산물 등
음성	황토명상마을	명상치유체험, 산야초 재배 등	친환경밥상, 흙집 민박, 산야초, 연잎차 특산물 등
제천	산야초마을	산야초, 농산물 수확 체험	민박, 천연화장품 만들기, 산야초차, 약초두부 만들기 등

□ 사례 1. 경상북도 치유농장 육성지원사업7)

○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시책 추진

- 경상북도는 치유농업을 시책화한 치유농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총 200억원을 투자해 40개소 이상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17년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범농장 6개소 조성하고, 평가·분석을 통해 사업화 모델 발굴 및 일반농가로 확대할 계획임
-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치유농장은 농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농장에서 원예, 농작업, 가축사육, 웰빙음식, 농촌 문화체험 등을 통해 현대인의 스트레스 등을 사전예방 및 해소시킬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함
- 치유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에는 개소당 5억원 이내의 지원금과 유럽의 제도화된 치유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해외 돌봄농장 연수 및 국내 치유농장 선진현장 방문교육 등을 지원함
- 치유농장 조성사업을 통해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지친 심신피로자, 정신장애, 환경병 등 현대병환자 등의 치유효과와 동시에 농가소득 증대, 관련 전문분야(심리상담, 원예치료)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함

6) 농촌진흥청, '6차산업 유형별 사업매뉴얼-치유형', 2014. p48.

7) 경안일보, '경북형 치유농업 돌봄농장 추진', 2017.11.30.

* 2017년 도입초기 사업명은 '돌봄농장 육성지원'이었으나 2019년 현재는 '치유농장 육성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함

<그림> 2019년도 경상북도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 지침(안)

구분	지원 내용
사업목적	정신적, 육체적 피로자, 청소년, 주부, 직장인 등 현대인의 심신의 안정과 휴식 제공
추진방향	농업농촌의 전원생활, 체험을 통해 현대인의 스트레스 등을 사전예방 및 지연, 해소시킬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치유대상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 농촌을 통한 심신의 안정과 휴식이 필요한 자 - 학생, 청소년, 주부, 직장인, 고령자 등(전문적인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외)
사업대상자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신청자격	치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이수중인자, 관련시설을 운영한 유경험자, 치유농장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자
사업량 및 지원금	2019년도 10개소 지원(개소당 5억원 이내)

□ 사례 2. 충남 홍성군,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육성

- 협동조합 '행복농장'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계획
 - 홍성군은 생산형 치유농업 체험 농장인 '행복농장'을 사회적농업 지역 거점농장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 홍성군 내 젊은협업농장,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 청년농부영농조합법인 등 다양한 사회적 농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 2020년도에 정신장애인 농업 직업 재활 프로그램 '자연구시', 만성질환자 대상 농업 프로그램 '돌보는 농업학교', 지역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꼬마농부학교' 등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교육 과정은 일일과정, 기초과정, 심화과정, 인턴쉽 등으로 세분화됨
 - 행복농장은 정신과 전문의를 이사장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등 사회적 농업 유경험자 3명을 신규 채용해 치유효과를 높일 계획임

□ 사례 3. 다과록

- 연령대별 농촌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
 - 남양주시에 위치한 다과록(<http://www.dagwarok.com/>)은 농촌교육농장으로 농촌진흥청이 인증한 농촌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함.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성인으로 대상을 나누어 연령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 연령층이 참여 가능한 공통프로그램도 운영함
 - 유치원생 : 포도수확체험, 차잎따기, 다양한 경험하기, 전통문화체험
 - 초등학교 : 교과서와 연계된 프로그램, 보고 느끼고 알아보기 전통문화체험

- 중·고등학생 : 진로탐색 직업현장 교육체험, 힐링, 치유 인성교육
- 성인 : 귀농귀촌교육, 힐링, 치유, 바른먹거리
- 공통프로그램(유치원생~성인) : 힐링, 치유, 인성교육, 수확하기, 차만들기, 떡·다식만들기, 식문화 교육, 밥상머리교육, 다도, 예절, 천연염색하기, 전통문화체험 등

<그림> 남양주시 다과록의 농촌체험학습 프로그램



※원예치료(대상 : 유치원~일반인)



※차 잎따기 체험(대상 : 유치원~일반인)

□ 사례 4. 쉽드림(쉽영농조합법인)

- 식물자원, 자연경관을 활용한 체험형 치유프로그램 운영
 - 전북 고창에 위치한 쉽드림은 영농조합법인 형태의 인력이 운영하고 있으며, 38개의 농가가 회원으로 있음
 - 전문 운영인력 3명(원예치료사, 체험지도사, 식생활지도사, 요리치료사, 식습관코치 자격 등)
 - 주요 이용객은 진로교육체험을 위한 초중고생, 치유프로그램 체험을 원하는 성인 등 일반인이며, 80~100명까지 수용 가능함(당일, 1박2일, 2박3일 프로그램 운영)
 - 진로체험학습은 농산물유통전문가, 식생활교육지도사, 교육농장플래너, 농가카페매니저, 농가 레스토랑 매니저 등의 체험을 토론식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운영함
 - 복분자, 아로니아, 화훼 작물을 기반으로 관광, 체험, 교육, 판매를 실시하고, 자연경관을 활용한 고창 청보리밭, 선운사 트레킹, 습지탐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
 - 안내시설, 실내체험장,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체험시설, 가공물 판매대 등의 시설을 갖춘

<그림> 쉽드림의 농촌체험형 치유프로그램8)



□ 사례 5. 거창군 사회적농업-치유농업 연계

○ 사회적농업과 치유농업을 연계한 치매 치유프로그램 운영

- 경남 거창군 치매안심센터는 거창군의 농촌지역특성을 활용하여 사회적농업과 치유농업을 연계한 치매 치유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함. 경상남도에서 적극 권장한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농업 실천 조직시범사업체인 ‘영농조합법인 수송대 발효마을’과 연계 추진함
- 치유프로그램은 치매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주1회 12회기를 3개월동안 운영함.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고추장만들기, 음식만들기 등을 통해 인지기능 유지와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치매안심센터장은 사회적 치유농업은 농업을 통한 치유와 돌봄, 정서적 안정,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치매진단으로 인한 우울감 예방과 치료 등의 효과를 갖는다고 말함

<그림> 거창군 치매안심센터, 사회적농업-치유농업 연계 치매치유프로그램9)



※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고추장 만들기(대상 : 치매노인 및 가족)

8) 사진 출처 : 쉽드림 블로그(<https://blog.naver.com/redpig9101>), 2019.11.14.

9) 사진 출처 : 뉴스경남, ‘거창군 도내 최초 사회적 농업과 함께하는 치매치유프로그램 시작’, 2019.10.14.

□ 사례 6. 부천시 돌봄치유농장

○ 커뮤니티케어 돌봄치유농장(케어팜) 추진

- 부천시에서 커뮤니티케어 노인돌봄사업 일환으로 치매환자를 위한 돌봄치유농장을 추진함
- 농업활동과 케어서비스 결합을 통해 경증치매노인의 치료재활과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농사의 치유기능을 접목 함
-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돌봄 치유농장 텃밭 4개구역을 활용하고 있으며, 위탁업체가 운영함
-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수행보조 인력과 지역 노인을 1:1로 매칭하는 노노케어를 진행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인지예방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할 예정임

<그림> 부천시 보건소·소사·오정치매안심센터의 케어팜¹⁰⁾



※텃밭가꾸기(대상 : 치매노인)



※직접 기르고 수확한 채소로 김치담그기

V. 시사점

GYRI

- ‘도농복합’, ‘화훼단지’라는 고양시 지역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사회 서비스 일환으로 치유농업 도입 필요
 - 고양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화훼단지가 잘 조성되어 있고 농지가 2017년 현재 3,806ha에 이르며 농가인구가 16,417명에 이룸

10) 사진 출처 : 경기시사투데이, ‘경증치매어르신, 케어팜으로 치유 활동’, 2019.10.21.

- 그러나 농지면적과 농업 후계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상황 속에서 농가에서 치유농장 운영은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꾀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또한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심신의 치유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의 한 대안으로 치유농장 도입 검토가 필요함
- ‘스마트팜’과 ‘치유농업’ 양방향 농업 기반 구축 필요
- 네덜란드의 사례와 같이 생산, 가공, 유통 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며 농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팜의 도입과 함께 시민이 더불어 상생하는 사회적 농업의 결정체인 치유농업을 도입하여 농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음
 - 고양 시도 농가소득 및 고양시의 자족기능 향상, 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해 스마트팜을 도입하고 동시에 시민들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의 한 방안으로 치유농업을 도입하여 농업에 있어 큰 두 개의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이 필요함
- 치유농업과 도시농업과 접목
- 농촌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도시의 공유지 중 유희지나 공공텃밭, 정원등을 활용한 도시농업을 접목하여 치유농업을 운영이 필요함
- 치유농업에 전문성을 겸비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지원
-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은 대부분 지역을 거점으로 한 인근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어 창의적인 주체로서 사회서비스를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는 중요 자원임
 - 치유농업 관련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전문적인 훈련을 지원하여 이들을 서비스 제공자로 활용 필요
- 노인일자리, 신중년일자리 사업, 일자리 교육 등 기존 사업 및 병의원등과 연계를 통한 사업 실시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활동 및 신중년 일자리 사업의 활동범위를 확장하여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
 - 치유농업의 경우 전문성을 겸비한 제공인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 중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지역내 병의원등과 연계 방안 모색

고양시정연구원 이슈브리프

제9호

발행일 2019.12.30.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고양시정연구원

TEL 031.8073.8341
FAX 031.8073.0710
HOME PAGE www.gyri.re.kr
ADDRESS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고양시정연구원(GYRI)**

-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고양시정연구원의 공식의견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인용할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